

교회 목표

신명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요일 4:1)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행 4:12) 그런데 최근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위장한 이단들이 우리 가까에서 활개치며 다른 복음(갈 1:8)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이단집단은 전략적으로 대형 교회에 들어가 자신의 실례를 숨기고 평범하게 있다가 성경공부를 핑계로 성도들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우리 구역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어디론가 가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주의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단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갈 1:7)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며 ‘이단’입니다. (고후 11:13,14) 현재 우리는 우리 가까이 곳곳에 숨어들어 교묘히 위장한 이단들과 영적전쟁 중입니다.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깨어 있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골 12:1,2) 계속해서 다음 주, 4월 22일자로 발행될 (주간충현)에도 이단과의 영적전쟁을 위한 글이 연재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교회 (552-8200, 내선 400)로 연락하시거나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딤후 3:10)



자기를 부린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찬양집)

하나님께 구별되어짐은?

하나님을 구별하여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을 주심을 감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교회, 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겉모습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과 관절을 쏘아 찌른다. (히 4:12,13) 신약은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아무 것도 사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요일 3:13 ; 요 17:14)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요일 2:15)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 때에 접하게 되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는 외식적인 종교의례와 율법에 빠져 완전히 세상에서 동떨어져 전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빠지는 위험이다. 둘째는 정반대로 세상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마 5:13)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의 소유로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좋은 예이다.

삼손이 활동하던 때는 사사기에서만 일곱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영적 타락에 빠졌던 시기였다. (삿 13:1, 2,8, 10-12,14)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더 이상 건디기 힘들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슬비 울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삿 2:18) 이 모습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사사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민족적인 구원도 없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 매우 특이하다. 삼손은 자신의 투쟁을 항상 홀로 치렀으며 그도 역시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싸웠다. 그 시대의 삼손이아말로 현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블레셋은 철의 문화를 갖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삼상 13:19,20, 22)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려 하였다. 결국 블레셋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은 부요해졌지만 하나님을 향

한 통회의 부르짖음은 사라졌다. (마 7:24) 이스라엘의 부요함은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 무관심에 빠지게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삼손을 잡으려 왔다고 하였을 때, 유다 사람 3천명은 와서 삼손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자기의 형제 삼손을 줄로 결박하여 끌어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달려들었다. (삿 15:11-13) 그때에 삼손은 줄을 끊고 결박에서 풀려나와 나귀의 턱 락을 들고 그것으로 1천 명을 죽였다. (삿 15:16) 삼손이아말로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확실히 은혜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성경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생기며 또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일어날 것과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은총의 복음은 전하여질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날 것이고 천국은 확장될 것이다. 의인의 길은 그날이 올 때까지 늘 밝을 것을 말씀하신다.

사사기에 보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있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삿 13:2,3,9)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셨다. 이삭 또한 하나님에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 주셨다. (창 17:19) 삼손의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삼손의 탄생이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선포된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탄생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마로 세워진다, 구별되어 진다)이었다. (민 6:1,2) 나실인은 자원을 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위함이다. 그러나 삼손의 서원은 다르다. 삼손의 삶 그 자체가 나실인이다. 나실인들은 서원의 하나로서 포도나무의 소산은 어떠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삿 13:14) 물론 포도 자체가 쓰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포도열매가 풍부한 삶과 안전한 삶을 나타내는 것인 것이다. 또한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머리에 사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죽은 시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셋째는 그의 사역이다. 이전의 사사들 중에는 삼손처럼 특이한 사역을 한 자는 없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지 않았다. 오직 그는 구원을 시작하였다. 블레셋을 붙잡아 둔 것은 삼손의 영향이요, 즉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사실상 다했을 때에 와서야 블레셋은 정복을 당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섬장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24대 교구 조직, 교구모임 장소 및 금요찬양집의 작성은 본지 편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GO TELL HIS DISCIPLES THE GOOD NEWS

⁽¹⁾Now after the Sabbath, as it began to dawn toward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came to look at the grave. ⁽²⁾And behold, a severe earthquake had occurred, for an angel of the Lord descended from heaven and came and rolled away the stone and sat upon it. ... ⁽⁶⁾“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was lying. ⁽⁷⁾“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behold,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behold, I have told you.”(Matthew 28:1~7)

Three days after Jesus died on the cross, a huge earthquake struck the earth and an angel came down from heaven and rolled away the stone that covered Jesus' tomb. The angel of the Lord sat on top of the large stone, waiting for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to come, so that he could deliver the good news. The Bible tells us that the angel'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ing as white as snow." (v. 3) The speed of lightning is very fast, so the angel's heavenly powers were quick and efficient. Traveling down from heaven, shaking the earth, and rolling away a tombstone all the while keeping his clothes sparkling white was not a difficult task for God's angel. The Roman soldiers who guarded Jesus' tomb went into shock when they saw all that happened, "The guards shook for fear of him and became like dead men." (v. 4) The reality of the moment was too much for them. Jesus Christ's resurrection was real. The word 'resurrection' itself is one of the most miraculous words. Can you imagine the power involved with overcoming death? In today's Bible passage, the first herald of good news comes from God's angel to the ears of women.

God's angel sat in front of an empty tomb! Everyone expected a dead body; especially the women who were coming to Jesus' tomb with their prepared spices. In an instant, heaven opened and God sent down His angel to roll away the tombstone. The earth shook because Jesus Christ had risen. The Roman soldiers froze in fear. Do you believe it?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has been crucified." (v. 5) These women were looking for a dead body, but instead met an angel of the Lord. The angel told them straight away, "He is not here." (v. 6) Is not that wonderful news? The first thing the women heard was that Jesus Christ's tomb was empty and not to worry.

God's angel told the women, "He has risen." (v. 6) These beautiful women received the greatest news this world could ever hope for. The news given by an angel was amazing. His clothing was as white as snow. His words were not loud, but they were powerful. Christ's resurrection was for our justification, "He who was delivered over because of our transgressions, and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Rom. 4:25) Our sins bring us to death, but Jesus' death brings us hope for eternal life. 1 Corinthians 15:17-19 says,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If Christ had not resurrected there would be no hope, no chance for salvation, but the angel said to the women, "He is risen!"

God's angel proclaime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v. 6) Who is He? He is God, the King of all kings and the Lord of all lord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He told the Jews,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Jn. 2:19) God's angel said, "Remember how He spoke to you while He was still in Galilee, saying that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 (Lk. 24:6&7) The women now remembered. Jesus knew His fate, He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cross, "For this reason the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so that I may take it again." (Jn. 10:17) The angel believed Jesus' words from the first. He knew in his heart the truth. He told the women that Jesus already explained this good news, so of course the tomb was going to be empty because Jesus said He would rise again in three days. He did rise! He is alive. He is the Savior God. This is the good news!

Lastly, the angel of God said,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behold, He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behold, I have told you." (v. 7) For over three years Jesus' disciples heard his sermon so many times, and they believed Him and followed Him, yet when the cross came they stopped believing. The sight of death weakened their faith. Even though they saw Jesus raised Lazarus from the grave, they could not understand why Jesus did not save Himself from the cross. Death is a powerful adversary, but Jesus defeated death. God's angel asked the women to "go quickly" to spread this good news. There was no time for disbelief and questions. Now was the time to act in faith. Jesus' disciples needed to hear this news. They needed to meet the resurrected Jesus, so that He could give them His great commission.

My dear friend, the good news that these women received is the same good news delivered to you. It is a wonderful message. It is an unchangeable message. It is the message of salvation. This is the message you need to receive and pass on. Jesus Christ is alive. He rose from the dead and ascended into heaven. He is the Savior. Sacrificial death of Jesus was accepted by God, and His miraculous resurrection allows God's grace to touch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Do you believe in Him? 

다음 주일 설교

제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¹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²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³“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⁴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태복음 28:1~7)



김성만 목사

부활, 놀라운 기적의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주의 천사는 굴러놓은 돌 위에 앉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번개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늘에서 온 이 천사의 힘이 빠르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뒤흔들고 무덤의 돌을 굴러버리는 동안 그의 옷은 여전히 눈이 부실 만큼 희게 빛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너무 놀라 쇼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4절) 그 모든 일이 매우 생생해서 도저히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신비로운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죽음을 이긴 권세에 대해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전해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인들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는 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있던 돌을 굴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공포 때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믿어지십니까?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5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지만 대신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인들이 처음으로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들은 온 세상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장 위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4:25) 우리의 죄는 죽음을 가져다주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영생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고린도전서 15:17~19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

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도, 기쁨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천사는 선포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19) 하나님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는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지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 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눅 24:6,7) 여인들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숨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자기 목숨을 잃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 10:17)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7절)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본 순간 그들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강력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의심하거나 질문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상명령을 받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이며, 절대 불변의 소식, 바로 부활의 소식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4. 11.)

부활의 기쁨 (요한복음 20:19~23)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실재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특히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아닌 영생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은 무엇인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여전히 악한 마귀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마 1:1)에 거하자. ‘예수!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찬 151장) 더 이상 우리의 심령에 욕망으로 가득한 바벨탑을 세우지 말자. 대신에 매순간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초소는 예루살렘이었다. 마침 유월절을 맞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은 무척이나 혼잡했다. 마침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기만 하였다. (눅 19:41, 42) 한때 예루살렘의 군중 가운데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다. (요 12:20) 이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다. 마침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요 12:23~27) 이처럼 제자들과 자신을 찾았은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은 겹세 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 26:38) 이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에는 심한 풍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히 5:7) 결국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와 적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총은 내려진 것이다. 죽음이 아닌 부활로 이어진 십자가의 은총은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기쁨을 부어 주고 계신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부활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수난을 참으셨던 것이다. (히 12:2) 우리도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찌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0, 11) 자신의 실력과 의지를 몰고 안 된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새가족!



문희경(성도, 새가족담당목부)

저는 2007-0018의 교적번호를 갖게 된 새가족입니다. 사실 3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동안의 저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떠나 타자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반복할뿐이었습니다. 참 기쁨이 있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난 나가면 벌 받을 것같이 겁이 나서였고 말씀을 잘 듣기는 들어도 항상 말씀에서 떠나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찬송을 불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부추기는 것 같아 주님 뵈기에 면목이 없고 죄책감이 들어 섬김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올해로 구세왕 20년이 되는 제 노래 인생에 이 문제는 고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언제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소프라노가 아니라 한국 전통가요를 다 할 부름 수 있었기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맘껏 하면서 주님을 떠나 안 했습시다. 잘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았을 뿐입니다. 주의 종을 비판하게 됐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기독교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중에도 항상 믿이 편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도 날 바라보고 찾아주고 기다려 주셨으니까...” 하는 실낱 같은 바람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타락처럼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저를 충현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이전의 교회와 충현교회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말씀은 담임목사님의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주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마 28:8~10)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었다. 죽은 착하고 있다가 치료 후에 살았던 것이 아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눅 24:38~42 ; 요 20:19,20) 이것을 진실로 믿을 때 부활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눅 24:52,53) 부활의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예언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 생전에 이미 예언되었다. “예수께서 그 문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였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 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니라 너희도 근심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6:19~22)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칠 핍박과,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강령을 예고하셨다. 이로써 제자들을 일깨우신 예수님은 보다 큰 승리의 기쁨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즉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해산 후에 체험하는 기쁨에 대한 비유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신 것인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궁극적 승리의 보장을 해주시는 말씀이다. 무엇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3일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졌건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은가? 영원한 삶이 아닌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어리석은 우리는 아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기쁨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려진 부활의 기쁨을 믿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오직 십자가와 관계를 맺는 은총의 자녀가 되자. “생전에 사랑 죽어서 구원 물려서 내 죄를 담당하자,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찬 158장) 아멘.

의 종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행위와 인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충현교회는 성경말씀이 절대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보수적이면서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천주교보다 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였고, 예술의 전당에 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이 어찌나 은혜롭고 아름답던지요! 특히 지난 1차 정치기후론 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중, 몹시 추운 날씨였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코트도 입지 않은 채 꽤 먼 거리의 큰 길가까지 나와 골목에 얹힌 차들의 질서를 잡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주님만이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잘난 자가 없고 그 평범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각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나 매우 겸손하고 열정적입니다. 또한 새가족 양육부 집회시간이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주님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저를 이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선택된 딸인 이상 어느 분야에서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세례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았었는데 많이 후회가 됩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어찌나 맛있게 보이던지 참하고 싶어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는 맘으로 최근 차근 차근 6개월 간의 새가족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아,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딸이 되어 거룩하게 참식할 성찬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매우 어두웠지만 지난 저의 모든 방황조차도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코트도 입지 않는 채 기도합니다. ‘지혜’와 ‘참음성’과 ‘마음의 부자’가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아멘’ 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는 예수님을 왜 그리 어려웠겠을까요?’ 하루하루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연약했지만...

처음 선교지의 영혼들을 대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도지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언어조차 그 지역의 방언 때문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마치 허공에다 말하는 것같이 느껴져서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의기소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은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입술은 연약했지만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과 그 이름의 권능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도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8)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는 물음에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그곳의 영혼들이 자신들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은커녕 예수님을 믿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척박한 땅의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고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금,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이 남은 사역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낯선 그들이지만 주님은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그 땅의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남은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비밀을 더욱 알아가는 증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미연(대학부 2팀)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청년부 1팀

- 주님을 열렬한 귀한 영혼들과 열렬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였으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정현)
- 많이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명하셨고, 사역이 계속 되는 동안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저희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승규)
- 우리가 사역한 곳은 주로 산지여서 사역하기 어려웠지만, 오지에 있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소수민 족을 비롯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지를 전하여 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전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열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은혜)
- 경찰에게 붙잡히더라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군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경찰에게도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주님은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용현)
-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 때마다 무너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를 보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였고 드디어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노경원)
- 가장 기억에 남는 영혼들은 마지막 사역지에서 마지막에 만난 세 명의 소녀들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을 신을 믿지 않겠다."고 하던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귀한 영혼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황미희)
- 시골마을을 해매며 체력의 한계를 느낀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몸이 힘들어서 이름이런 되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돌리다 다시금 지켜있는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김이현)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평신도 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토)	정영미 · 전혜영 (에바다부)

기 간	팀	팀 장
4월 9일(월) ~ 4월 18일(수)	12교구 1팀	이성섭
4월 9일(월) ~ 4월 18일(수)	15교구 1팀	최진성
4월 10일(화) ~ 4월 19일(목)	18교구 1팀	김홍기

못 생긴 질그릇

몇 년 전, 아프리카에서 농아인 선교 사역을 하던 여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농아인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대신 수화로 대화하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 어디든 가서 농아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A국의 농아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불러 A국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수화를 주셔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지만 나는 예수님께 아무 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부끄러울뿐입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고 죽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배틀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돌이켜 보면 불수록 부끄러움뿐인 죄인입니다. 위임복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집과 욕심과 세상적인 지식을 망치로 들을 깨듯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 주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못 생긴 질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채실 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편안하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감자가 팔아로 인도하실지 베드로처럼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핏박이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때고름과 위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님! 저와 전혜영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정영미(평신도단기선교사, 에바다부)



어머님의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 가사를 외고 또 외신다. 89세의 나이로 가사를 알기하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나이에 찬양대를 하게 되다니...' 하시면서 일 주일 내내 찬송가를 부르신다. 예루살렘 찬양대에 처음 생길 때 어머니는 몹시 걱정하셨다. 그 때 위임목사님께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모두 해도 된다고 하셨다면서 어린이아이들이 좋아하셨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함꼐 애써도 죄 씻지 못 하네."

어머님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시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셨고 열심이 특성이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에 참석하셨다. 또한 결석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드시며 교회 일꾼들이 예배에 빠지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한탄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 변하셨다. 예루살렘 찬양대에 참여하신 뒤로 "내가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하신다. 어머니의 찬양 속에 이런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늘고 연합하여서 원망도 적지도 많으셨던 어머니, 이런 주님 앞에 서실 그 때까지 항상 찬양할 원하십니다. 그 찬양으로 잠자던 영혼도 깨우고 내뿜는 나에게는 도전하셨다. 어머니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찬양대를 생겼나 내셨지?" 하시면서 일 주일에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목요일, 모래는 금요일..." 하시면서 일 주일 내내 찬양대에 서시는 금요일을 기다리셨다. "어머님! 아무쪼록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남은 삶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박경애(집사, 18교구)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모태신앙으로 자란 나에게 어릴 때 배운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은 아주 당연했다. 하지만 키가 자라면서 나의 지식도 자랐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성경말씀을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자연스레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날로날로 의심이 많아지는 나에게 예수님은 도마를 떠올리게 하였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 자국이 선명한 열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지게 하여 도마의 의심을 다 없애셨고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다. 믿음을 믿음으로 이해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가 나에게 계속 임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 단지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것이 아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씻기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 만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른다" 하신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끔찍하다. 고난주간에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나에게 더없이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달게 지고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한다.

김종훈(안수집사, 4교구)

차병철(대학부)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회복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너는 어찌하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았고, 초라한 제 신앙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핍박 그리고 예수님을 막 앗아간은 군중들의 외침보다 더 끔찍한 고통은, 아마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철저히 무시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가나 믿지 않는다고 제가 일로써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적부터 예배를 빠지거나 봉사를 소홀히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아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이처럼, 예수님의 눈을 피해가면서 아니냐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찌한 제 안의 의심이 저를 지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합한지를 주님은 이미 아시잖아요..."라고 타협을 하면서까지 용서를 미리 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저를 이루만지는 주의 신실하신 손길에 항상 풍족했지만, 십자가를 너무 쉽게 잊고 또 다시 저 앞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회

말씀으로 마음을 찢고

"국도님!" 여는 때와 다름없는 알뜰 소리, 오늘도 새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른 새벽에 어디를 그리 가세요?" 새로 오신 경비아저씨는 금금을 참다 못해 우리 부부의 새벽 외출을 신기한 듯 물어보셨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는 간편한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우리에게 버리고 버린 물에 물어보신 것이었다. 기회가 되면 이분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참찬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잃고 연약함을 새삼 회개한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아가셨는데 정작 제자들이 유망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를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셨을 때 잠시 걸다가 바탐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다가 베드로를 향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웬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며 믿음으로 걸어야 함에도 바탐을 무서워하였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나는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려 한다. 직장과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때가 허다하다. 일상적인 생활이나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 순전히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앞선다.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정량도 믿고 믿을

구원은 1만 달란트(3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하셨다. 아, 이 보다 훨씬 더 볼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총이 크고도 광대할때는 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누워 돌아보시며 나의 믿음을 회복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하는 일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 얼마나 고만하했던가? 비쁘는 핑계로 마음을 잃지 않은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의 믿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다져 본다.

김종훈(안수집사, 4교구)

복입니다. 저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실 주님은 부활의 예수님뿐입니다. 매일의 삶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싸움 힘도 없고 인내력도 없는 저이지만,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원하신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저 사람 받은 말이... 나와 같이 회개하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제가 어떻게 복음을 숨기고 살아야겠습니까? 중증부 교사로 섬기면서 고인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왔습니다. 말씀 질문에 정답도 곧잘 대답하고,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고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답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주 인격적이고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끼는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날을 갈망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나라를 허락해주시는 예수님은,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절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제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다하고자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조설희(교사, 중동3부)

24개 교구 조직 및 모임 장소 *오늘(15일)부터 시행

제 1 교구위원회

위원장: 김은호 지 도: 김악환 서 기: 안석현 회 계: 고재승

교 구	교구장	목 사	전도사	교구모임 장소	지 역
1	김신국	이재영	김정연	본당지하 호산나홀	역삼동(충현지역·교역자)
2	장창수	안치원	강호숙	제2교육관 3층	역삼동(국기·테헤란·한서·개나리·진달래지역)
3	구재완	김악환		제2교육관 2층(A)	역삼동(상복)·삼성·청담·압구정·신사
4	안석현	장 훈	이복순B	제1교육관 301호	도곡·개포·포이·내곡
5	양기수	하종철	이육주	선교관지하2층 매추라기홀	대치·일원·수서·새곡·율현
6	김규석	최성득	김말자	북지관 지하2층	송파구(잠실(잠실6제외)·삼전·석촌·가락·문정·장지)
7	고재승	이희식	이혜숙	제2교육관 4층	송파구(송파·방이·오륜·풍납·오곡·마천·신천·잠실6)·강동구(성내)
8	송두섭	임현덕	최필실	본당지하 아벤홀	강동구(성내제외)·광주·하남·이천·여주
9	박철구	김준희	육미자	제1교육관 407호	성동구·관악구(구의·종곡·광장·능동제외)
10	장승규	윤수일	전은희	제1교육관 507호	종로구(면목·망우동)·구리·남양주·광진구(구의·종곡·광장·능동)
11	박덕양	강병구	윤인숙	제1교육관 501호	노원구·강북구·도봉구·의정부·포천·동두천·양주·철원
12	황의만	양태선	한영준	제2교육관 2층(B)	동대문구·성북구·종로구(면목·망우동 제외)

제 2 교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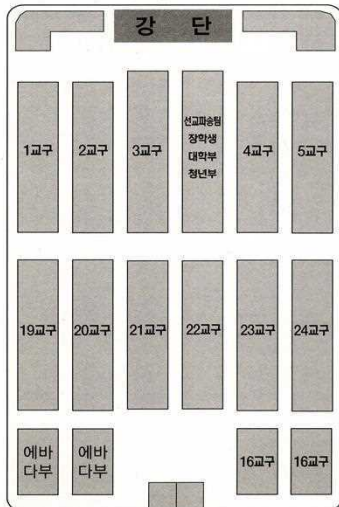
위원장: 임무천 지 도: 안창덕 서 기: 정청길 회 계: 김태식

교 구	교구장	목 사	전도사	교구모임 장소	지 역
13	박상대	류병희		제1교육관 영아부실	강남구(논현)
14	김구형	김완수	김정자	제2교육관 코이노나일	서초구(서초·잠원·우면·양재)
15	이상성	안창덕	임태주	제1교육관 307호	서초구(반포·방배)
16	석영식	이경준	김연식	제1교육관 201호	종로구·종구·용산구
17	함철주	유성택	홍순애	본당지하 할렐루아홀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고양·일산·파주
18	김태식	이성진	김정희	제1교육관 401호	동작구·영등포구
19	노영환	유현철	전영희	제1교육관 601호	관악구·금천구
20	신상수	황진섭	강덕필	본당 112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21	정청길	최종철	이복순A	갈릴라홀	인천·김포·강화·시흥·광명·부천
22	임무천	정충신	강영미	제1교육관 207호	과천·수원·안양·의왕·오산·화성·군포·대전
23	김연근	한성일		북지관 지하1층	성남
24	진학래	최성규	임태순	베다니홀	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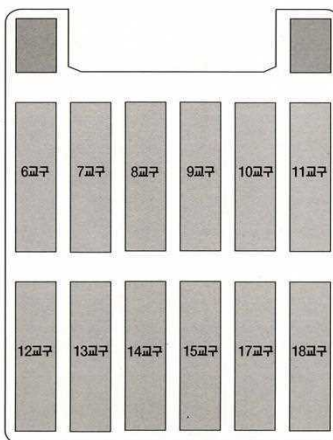
금요찬양집회 교구 작성

*이번주 금요일(20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작성 배치



본당 2·3층 작성 배치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88	조을희	2	청년2부		619	홍현진	15	청년2부	김연환(15)
589	김환기	6	청년1부	김현철(8)	620	이정민	3	청년2부	
590	최순재	6	청년2부	김일자(8)	621	장정환	19	종동2부	김민혜(1)
591	망	19	외선부	김지선(7)	622	송기환	3	청년2부	
592	투	19	외선부	김석영(7)	623	유재기	3	청년2부	
593	현	19	외선부	김석영(7)	624	윤희영	19	외선부	강진규(14)
594	투히	19	외선부	박모세(19)	625	브레브르	19	외선부	강진규(14)
595	갈나	19	외선부	한금주(7)	626	바츨	19	외선부	정혜원(7)
596	투통	19	외선부	김석영(7)	627	시몬데크	19	외선부	정혜원(7)
597	김민석	15	청년2부	김광수(15)	628	연태도	19	외선부	장승숙(13)
598	문현정	19	대학부	박재경(17)	629	달달	19	외선부	장승숙(13)
599	박대순	19	고등부	김경원(1)	630	김성욱	19	청년1부	이승택(1)
600	최재훈	19	대학부	한지훈(7)	631	박주희	19	청년1부	최민숙(4)
601	김수희	14	청년2부	고이숙(18)	632	조은미	19	청년1부	장지은(12)
602	심경진	19	청년1부	윤종국(3)	633	김연영	7	소망부	김지영(7)
603	서은아	19	청년2부	박정혜(3)	634	권성진	19	청년1부	김영숙(5)
604	김정영	3	청년2부	강승원(3)	635	김영미	19	대학부	
605	이재성	17	청년2부	장은숙(17)	636	이성욱	5	청년2부	김승숙(3)
606	김일주	1	청년2부		637	오명환	19	청년1부	
607	유은정	6	청년1부	박종규(2)	638	김남영	13	청년2부	이소규(8)
608	김미선	6	대학부	박영기(2)	639	최정환	12	소망부	주낙진(10)
609	노광윤	19	종동2부	장태훈(2)	640	김 훈	3	청년2부	
610	최영신	19	청년2부	김수영(10)	641	최희옥	3	청년2부	
611	이재희	11	청년1부	박정영(1)	642	이은영	7	청년2부	신명일(7)
612	김종갑	18	청년2부		643	서민호	19	외선부	최옥숙(14)
613	김성근	19	종동2부	김진주(2)	644	이미숙	1	청년2부	김종민(13)
614	이현호	19	종동2부	한성원(17)	645	유우연	19	청년1부	
615	김정문	19	대학부	이은동(7)	646	전정삼	19	고등부	김은정(12)
616	김길순	17	청년3부		647	박정은	5	청년1부	전현선(5)
617	오민호	9	청년1부	김성태(9)	648	장승현	9	청년2부	
618	박진현	15	청년2부	김연환(15)					

*송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훈	남선우 연희초등학교 13교	박기근 연희초등학교 13교	류병배 연희초등학교 13교	여국근 연희초등학교 15교	안창덕 연희초등학교 15교	정진호 연희초등학교 15교	
■ 사	사신득 경향남 1교	김익환 경향남 1교	장 훈 연원초 1교	임원덕 이희초 1교	이희식 최창철 1교	최창철 최창철 1교	
■ 홍	홍동열 이정우 봉서초 7학급	최종철 이정우 봉서초 7학급	하정원 이제영 1교	이경순 지문초 1교	양재용 유원초 1교	이윤우 유원초 1교	
■ 한	한기원 구원초 7학급	한철진 구원초 7학급	유계근 강명구 1교	강명구 전선원 신원초 1교	전선원 신원초 1교	이창원 신원초 1교	
■ 구	구수현 배동길 1교	최유덕 배동길 1교	이종진 양태선 11교	유창대 유원초 1교	신원철 유원초 1교	김원배 유원초 1교	
■ 정	정대우 정대우 1교	배종길 정대우 1교	양태선 양태선 11교	신원철 유원초 1교	유원철 유원초 1교	이창원 유원초 1교	
■ 이	이정달 이정달 1교	이희호 이정달 1교	김한수 최성득 1교	최성득 최성득 1교	최성득 최성득 1교	최성득 최성득 1교	
■ 정	정철길 신상수 1교	신상수 신상수 1교	■ 여	여진도사 윤진식 1교	한동진 한동진 1교	김진식 한동진 1교	
■ 이	이달호 정철환 1교	정철환 정철환 1교	김말파 안동준 1교	김진영 김진영 1교	강필범 강필범 1교	최성득 최성득 1교	
■ 신	신선현 안석현 1교	안석현 안석현 1교	전선원 김경자 1교	김경자 김경자 1교	이복순A 이복순A 1교	류희숙 류희숙 1교	
■ 정	정성기 정성철 1교	정성철 정성철 1교	한은희 임태주 1교	김경미 김경미 1교	오익복 오익복 1교	오익복 오익복 1교	
■ 신	신승기 전은배 1교	전은배 전은배 1교	강호주 전영희 1교	전영희 전영희 1교	이혜숙 이혜숙 1교	이혜숙 이혜숙 1교	
■ 이	이차용 신선리 1교	신선리 신선리 1교	■ 전	전영일 전영일 1교	강일근 강일근 1교	강일근 강일근 1교	
■ 정	정창철 정창수 1교	정창수 정창수 1교	■ 전	전임지희 전임지희 1교	사운성 사운성 1교	김갑식 김갑식 1교	
■ 김	김기수 김태식 1교	김태식 김태식 1교	■ 전	전임효주 전임효주 1교	김효연 김효연 1교	■ 전	전임유자 전임유자 1교
■ 김	김기수 김태식 1교	김태식 김태식 1교	■ 전	전임유자 전임유자 1교	전임유자 전임유자 1교	■ 전	전임유자 전임유자 1교

